

코로나19 비상대응체제 강화

김승환 교육감 주재 비상대책회의 소집... 철저한 경계태세 유지해 확산 방지 총력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전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비상대응체제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따르면 21일 오전 9시 김승환 교육감 주재로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확진자 현황 및 동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철저한

경계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학사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새학기 일정은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보건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2월 말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은 운영 협조 요청 자료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으로의 현장체험학습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은 가능

한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대구 신천지 교회에 방문한 학생이나 교직원, 학부모는 그 사실을 해당 학교에 최대한 빨리 신고해 줄 것을 독려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전주와 김제지역 학교들에 대한 방역활동과 상황 모니터링을 꼼꼼하게 해달라"면서 "안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비상상황을 잘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문해교육 프로그램 초등학력 인정서 수여식 개최

도교육청, 만43세~만88세까지 이수자 102명 대상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 21일 본청 2층 강당에서 2019년도 문해교육 프로그램 초등학력 이수자 102명을 대상으로 초등학력 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는 초등 문해교육 프로그램 3단계 이수자들이 참석했다. 전주부평생학교 21명, 군산시 늘푸른학교 8명, 우리배움터한글학교 10명, 시민교육센터 6명, 여성회관한글사랑반 16명, 진달대학교 10명, 부안교육문화회관 11명, 무궁화야학교 10명, 남원시평생학습관 2명, 부안군 비래청춘학교 8명 등이 다.

이수자는 102명으로 모두 여성이다. 최고령자는 만88세 김복례씨(31년생), 최연소자는 만43세 남미숙씨(77년생)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력인정 취득자는 총 415명이다.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해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만 18세 이상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고시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초등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1일 본청 2층 강당에서 2019년도 문해교육 프로그램 초등학력 이수자 102명을 대상으로 초등학력 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중학 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도내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15개 기관으로, 초등과정 16개, 중학과정 4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학력인정 초등·중학 교육과정은 각 3단계로 이뤄지며 이수까지는 단계별 1년씩 총 3년이 소요된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지 않는 기관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교원,

시설 등에 관한 최소요건을 갖춰 교육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감은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학력인정을 신청하면 문해교육심사위원회에서 학력인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교육감이 학력인정서를 교부한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대부설초, 국립부설학교 학교공간 혁신사업 선정

교육부 주관 5개 학교 최종 선정... 국립초 중 유일하게 선정 쾌거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교장 이영환)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국립부설(특수)학교 학교공간 혁신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국립부설학교(초, 중, 고) 및 국립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공간혁신사업 학교를 모집한 결과 18개 학교가 계획서를 제출했고, 계획서 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5개 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그 중 국립초등학교에서는 유일하게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가 뽑혔다.

이번 공간혁신사업을 통해 학교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고, 미래형 학교 모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사립중심의 공간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크다.

2020년 국립부설(특수)학교 학교공간

혁신사업은 총 2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이번에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배부되며, 국책기관인 한국과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과 협력을 통해 학교공간혁신의 새로운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게 될 것이다.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는 2018년에 운동장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친환경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했고, 2019년에는 전주시와 협약한 '아리조아 예술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생각을 지역 예술작가들의 작품으로 소화한 미술작품을 학교의 다양한 공간에 배치하여 학교공간의 변화를 모색해 왔으며, 이번에 선정된 학교공간혁신사업을 통해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맞추어 학교의 공간을 소통과 협의를

통한 배움과 삶의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권미나 담당교사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개념의 학교 공간을 창조함으로써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학교가 되길 희망하며,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는 2020년을 맞아 교육부 지정 학교공간혁신사업에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전북교육청 지정 혁신학교로 선정돼 배움이 행복한 학교, 가르치며 함께 성장하는 학교로서 전라북도의 교육을 넘어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끌어 가는 학교로 크게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인문한국플러스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교양총서 발간

전주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이하 '지역인문학센터')에서는 교양총서 '문화와 함께하는 공존의 인문학'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8년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 출범 후, 첫 번째로 출간된 이번 교양총서는 약 2년여 간 지역의 인문학 대중화 거점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많은 대중강좌의 축적물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최기우(최명희문학관), 오원환(군산대), 장근범(사진가), 이경재(시인·아동문학가), 이용희(재즈피아노예술단) 등이 참여한 이번 교양총서는 연극, 영상, 사진, 문학, 음악 등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대중문화가 가지는 인문학적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양총서 발간의 근간이 된 '온다라 교양플라자'와 '온다라 인문아카데미' 강좌는 지역인문학센터의 대표 강좌로서 지역민들에게 역사·문화·문학·철학·예술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역인문학센터에서는 2024년까지 문학, 로컬리티, 문화, 예술과 관련한 총 6권의 교양총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다가가는 인문학, 함께하는 인문학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북지역 인문학 대중화와 저변확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에서는 교양총서 '문화와 함께하는 공존의 인문학'을 발간했다.

전북체육회,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

회관 헬스장·스쿼시장·국민체육센터 아중수영장 등 무기한 운영 중단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벌이고 있다.

최근 도내에서 2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회관 헬스장과 스쿼시장을 비롯해 전북도로부터 수탁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아중수영장 운영 등을 이날부터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전북스포츠과학센터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선수들의 측정을 연기하기로 했으며, 체력단련장도 무기한 폐쇄 조치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각 종목단체와 시군체육회 등에도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과 개인 위생관리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생활체

육지도자 160여명·광장지도자 130여명)에게도 지도활동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전지훈련 일정까지 조율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타 지역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종목에게 조기 복귀를 요청한 상태며, 훈련장과 숙소 이외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다음주 전지훈련이 예정됐던 일부 종목은 일정을 연기시키기로 결정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학생주도과학동아리 운영

전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은 학생의 잠재 역량과 자율성을 기르기 위한 2020년 학생주도과학동아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과학동아리 기획과

예산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잠재 역량을 발휘하고, 과학적 흥미를 지닌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학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교 학생주도과학동아리 180팀을 운영하며 팀당 평균 100만원을 지원한

다.

분야별로는 과학실험 분야 100팀, 과학연구(R&E) 40팀, 교과 외 활동 40팀이다.

도내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과학동아리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27일까지다. 선정 결과는 4월 중 안내하며, 활동 기간은 10월까지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